

내포지역의 불교(佛敎)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1. 내포(內浦)의 지세(地勢)

태안반도는 한반도의 정기가 한 데 뭉쳐져 분출되는 곳이다. 백두산으로부터 발원하여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며 내려오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태백산에서 서쪽으로 꺾어져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으로 내려가면서 한반도의 골격을 이루어 놓는다.

그런데 내륙의 중앙인 속리산에서 북쪽으로 한 가닥 한남정맥(漢南正脈)이 치올라 가면서 청주 선도산(仙到山), 청안 인경산(引頸山), 음성 보현산(普賢山), 죽산 칠현산(七賢山)으로 이어지다가 장

항령(獐項嶺)에서 다시 분기(分岐)한다. 여기서 한 줄기는 계속 북진하여 과천 관악산(冠岳山)으로 달려가며 남한강 물줄기를 한강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한 줄기는 다시 남진하여 천안 성거산(聖居山), 진의 월조산(月照山), 공주 차령(車嶺), 온양(溫陽) 각흘치(角屹峙), 대흥 차유령(車踰嶺) 사자산(獅子山), 청양 백월산을 거쳐 남포 성주산(聖住山)까지 내려가며 금북정맥(錦北正脈)을 이루어 놓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줄기가 서북쪽으로 휘돌아 되돌려 치며 보령 오서산(烏棲山)으로 이어져 북주(北走)와 서진(西進)을 계속하면서 마치 분수(噴水)처럼 여러 가닥의 산줄기를

북쪽 바다로 혹은 서쪽 바다로 뿜어내며 태안반도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부채살처럼 펼쳐져 나간 산맥에 따라 복잡한 대소반도가 형성되고 그 산맥 사이를 따라 크고 작은 시냇물이 흐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 지형이 전체적으로 완만한 데다가 바다의 조석간만의 차가 8~9미터에 이르는 큰 격차를 보이므로 시내마다 거의 모두 갯물이 역류하여 중하류 지역은 바다와 직결되므로 수십리 혹은 백여리 물길이 내륙으로 깊이 들어오며 바다물을 끌어들이었다.

그러니 곳곳에 안개(內浦)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지역 전체를 안개 즉 내포

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오서산 줄기가 계속 북진하여 홍주 보개산(寶蓋山) 월산(月山) 삼존산(三尊山), 덕산 가야산(伽耶山), 서산 상왕산(象王山), 면천 마산(馬山), 아미산(蛾眉山) 신암산(申巖山) 창택산(倉宅山)으로 이어지는 가야정맥(伽倻正脈)과, 온양 각홀치에서 남진해 오던 금북정맥(錦北正脈)이 성주산을 휘돌아 이어지면서 삼태기 같은 지형(地形)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사이 모든 물줄기를 몰고 곧장 북류(北流)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삽교천(옛 이름은 宣化川)은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유역평야가 가장 넓어 이 지역을 내포중의 내포로 꼽는다.

그래서 광의의 내포는 태안반도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지만 협의의 내포는 삽교천 유역의 평야지대만을 지칭하는 명칭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지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내포지방은 인류 생활의 필수조건인 어염시수(魚鹽柴水)가 풍부하고 곡물이 지천이라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인류 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선박(船舶)의 발달로 해로(海路)가 열리면서부터는 외래문화의 유입이 용이하게 되니 더욱 문화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갔다. 그 결과 이곳은 일찍

부터 한반도 안에서는 가장 문화 선진 지역으로 부상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삼한(三韓)시대에는 마한(馬韓)의 중심 지역으로 백제의 침략에 끝까지 저항하였었다. 그리고 지배층이 압록강구를 거점으로하여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해양세력인 백제가 현재 서울인 위례성(尉禮城)에 수도를 정하고 건국하였다가 강화만 일대와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공주로 남천하였을 때는 이곳 내포를 해상 거점의 최후 교두보로 삼아 고구려의 남천을 끝까지 막아내었다.

그래서 문주왕(文周王, 475~477)이 웅천(熊川, 곧내 즉 큰내라는 우리말의 한자식 표기) 즉 공주로 피난해 와서 나라를 재건한 이후부터는 이곳 내포가 백제를 지탱해 주는 해양세력의 근거지로 부상하게 된다.

이로말미암아 이곳을 지배하던 진씨(眞氏, 뒤에 驪陽 陳氏가 된다.) 일족을 중심으로 백제는 왜(倭)와 남중국 해양세력의 도움을 받아 가며 제해권(制海權)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 결과 개로왕 21년(475)에 강화만에 주둔하던 백제 수군선단이 고구려 수군 선단에게 격파당하여 빼앗겼었던 서해 제해권을 46년 만인 무령왕(501~

522) 21년(521)에 이르러서야 고구려 선단을 다시 제압함으로써 되찾아 온다.

이제야 백제는 다시 바다를 호령하면서 남중국 양나라와 일본을 자유롭게 내왕하며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비롯한 중국 해안 곳곳에 건설해 놓았던 해양 식민지와와의 교통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당시 남북 중국을 통틀어 모든 나라에서 불교를 국교로 떠받들며 불교적인 이상 국가 건설을 도모하고 있던 상황에서 불교가 이곳 태안반도로 집중 유입되지 않을 리가 없다.

불교는 인도에서 일어났으니 1세기 후반경 중국으로 전해와서 석도안(釋道安, 314~385)에 의해 중국화를 마무리 짓고 나자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前秦) 황제 부견(苻堅, 357~385)이 도안의 제자인 순도(順道)를 보냄으로써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져 왔고,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에 동진(東晉)에서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처음 와서 불교를 전해 주었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백제로 왔다면 북조의 전진이나 후진(後秦) 후연(後燕)을 거쳐 고구려를 통과하는 육로를 택했을 리는 만무하다. 당연히 배를 타고 상해(上海)나 영파(寧波) 등지를 출발하

여 흑산도를 거쳐 목포로 해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강화만에서 조강(祖江)으로 들어와 한강을 거슬러 올라 위례성에 도착하는 해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때 백제는 강화만을 거점으로하여 서해와 동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해양 강국이었던 때문에 해로를 이용하는 길이라면 백제 선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당연히 인도로부터 해로를 택해 남중국 즉 동진까지 왔던 마라난타가 백제로 가려했다면 이 길을 택했을 것이다.

이로부터 당시 세계를 주도하던 선진 이념인 불교는 자연스럽게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던 백제의 지배층에 전파되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마한계의 토착 원주민을 이끌어 나가려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인 지 근 백년쯤 되던 시기인 개로왕(455~475) 때에 고구려 승 도림(道林)이 간첩으로 내려와 개로왕의 존경을 받으며 개로왕으로 하여금 토목 사업을 일으키게 하고 군비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사회현상이었다. 그래서 북위 문성제(文成帝, 452~465)는 황제를 당금여래(當今如來)

즉 현세에 출현한 부처님으로 생각하여 선대 황제의 모습으로 불상(佛像)을 조성하였었고, 남조 양(梁)나라 무제(武帝, 502~549)는 스스로 보살(菩薩)이라하여 불교적인 신정(神政)을 베풀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선진문화의 수용에 항상 앞장서 온 백제의 지배층들이 이를 모방하지 않을 리 없다.

2. 내포 불교의 시원

그래서 태안반도를 거점으로 제해권을 되찾아가던 무녕왕대에 이르면 태안반도를 세력 기반으로 하고 있던 진씨 일족이 제일 먼저 불교에 깊이 귀의하여 남북중국으로부터 불교를 활발히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당시 북중국을 중심으로 운강(雲岡)석굴, 용문(龍門)석굴, 향당산(響堂山)석굴, 천불산(千佛山)석굴 등 석굴 조각이 유행하던 시류(時流)에 따라 내포의 중심지인 큰물현(今勿縣: 합덕·고덕·봉산 일대)에 <예산사면석불(禮山四面石佛)>(보물 794호)을 조각해 낸다. 중국 석굴 조각 양식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마애불 양식이다. 아마 이 <예산사면석불>의 주불인 남면 석가여래좌상은 무녕왕의 초상조각일 것이다.

지금 이 <예산사면석불>이 서 있는 봉산면 화전리 일대는 과거에 갯물이 들어오던 곳으로 뱃길이 통하던 가장 깊은 오지이었다. 그래서 무녕왕이 이곳에 다 백제 수군의 본영을 설치하고 전선(戰船)의 건조에 국력을 기울여 결국은 백제 수군을 재건하고 제해권을 되찾아 백제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듯하다.

그러나 무녕왕이 제해권을 되찾아 남조 양나라와 교통을 터 놓은지 2년 만에 62세로 돌아가자 뒤를 이은 태자 성왕(聖王, 523~553)은 이곳에 부왕인 무녕왕의 초상조각으로 불상을 조성하여 이를 기념하려 했을 것이다. 당시 북위 운강석굴이나 용문석굴에서 당연히 시행하던 전례를 따른 풍습이었다.

그리고 위덕왕(威德王, 554~597) 때에 이르러서는 보다 더 서쪽으로 나가 태안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태안의 진산(鎭山)인 백화산(白華山) 상봉 가까운 절벽에 사람 키보다 더 큰 <태안마애삼존불(泰安磨崖三尊佛, 보물 432호)>을 조각해 낸다. 아마 이는 신라의 배신을 응징하러 직접 나섰다가 관산성(管山城, 옥천) 전투에서 전략적인 실수로 신라군에게 피살된 비운의 영웅인 성왕의 초상조각일 것이다.

무왕(600~640) 초년 경에는 태안반도

의 북쪽인 당진만에서 채운천(彩雲川)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 그 물길의 발원처에 가까운 상왕산(象王山) 계곡에 더 세련된 <서산마애삼존불(瑞山磨崖三尊佛, 국보 84호)>을 조성해 낸다.

대개 이 시기에 이르면 불교가 이 내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해되고 신앙되어 상하에 뿌리를 굳건히 내려가는 듯

하다. <태안마애삼존불>에서는 삼존불 구도에서 왜소한 보살상이 거대한 양불 사이에 끼어 표현되는 미숙한 구도를 보이는데 <서산마애삼존불>에서는 거대한 주불을 중심으로 왜소한 두 보살이 좌우에서 협시하는 일반적인 삼존불 구도를 나타내 보인다. 그러면서 바로 내포 지역의 미남 미녀 상호와 그 특유의 미

소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 수덕사에는 혜현(慧顯, 570~627)대사라는 고승이 있어 삼론학(三論學)을 강의하고 법화경을 염송하며 대중을 교화하였다니 이미 수덕사를 비롯하여 <서산마애삼존불>이 있는 보원사(普願寺)와 개심사(開心寺) 등의 사찰이 이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서산 마애삼존불

을 짐작할 수 있다.

수덕사 혜현대사에 대한 기록은 당(唐) 나라 태종 정관(貞觀) 19년(645)에 도선(道宣)율사가 편찬한 廉厭『속고승전(續高僧傳)』 권 28 백제국 달나산 석혜현전(百濟國 達拏山 釋慧顯傳)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혜현은 어려서 출가하여 법화경을 염송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었는데 복을 빌어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 많았었다. 또한 삼론을 강론하기도 하였었는데 처음에는 본국 북부 수덕사에 살면서 대중이 있으면 강론하고 없으면 맑게 염송하니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시끄럽게 찾아왔었다.

이에 남방 달나산(達拏山; 달이 나오는 산이란 의미로 전라남도 강진 월출산의 우리말 원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가서 예전처럼 수행하다 그곳에서 돌아갔다. 동학들이 그 시체를 메어다가 석굴 속에 두었더니 호랑이가 모두 먹고 허만 남겨 놓았다. 3년이 지나자 홍적색이던 혀가 자색으로 변하면서 돌같이 굳어지므로 도속(道俗)이 모두 괴이하게 여겨 공양하고 잘 싸서 석탑에 모셨다. 나이가 58세 이었고, 그 해는 정관(貞觀) 초년(627)이었다.]

혜현대사의 신비스럽고 이상한 이야기가 당나라에 전해져서 승사(僧史)에 까지 올라 있으니 당시 내포지역의 불교 수준이 세계적이었다는 사실을 이로써 확인할 수 있다.

〈예산사면석불〉이나 〈태안마애삼존불〉 및 〈서산마애삼존불〉이 모두 사람 키 이상의 크기를 가진 거대한 규모의 불상들인데 이 당시에 이런 규모의 불상 제작은 백제의 수도가 있던 부여나 공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백제 문화의 중심지는 백제의 수도가 있던 부여나 공주 지역이 아니고 백제 해상 세력의 근거지가 되고 있던 이 내포지역이었다는 사실이 이로써 증명된다.

이 시기에 이만한 규모의 불상을 남긴 곳은 한반도 내의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당시에는 태안반도 즉 이 내포지역이 일종의 문화특구로 한반도 내에서 가장 문화선진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는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해양세력의 전진기지이자 그 본부로서 외래문물을 활발히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백제의 정치·경제·군사·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에게 멸망당했을 때에도 내포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니 부흥운동의 정신적 지주이던 도침(道琛, ?~661)대사는 아마 수덕사 승려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도침대사가 임존성주이던 의자왕의 종계(從弟) 복신(福神, ?~663)과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켜 일본에 가 있던 왕자 부여풍(夫餘豐)을 모셔다가 백제를 거의 다시 일으키게 되었으나 복신의 배신으로 그에게 살해당함으로써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신라 조정에서는 이 내포지역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이 지역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서산마애불이 있는 상왕산 계곡에 보원사(普願寺)를 크게 중창해 짓고 화엄종찰(華嚴宗刹)로 삼아 이곳 불교를 장악해 가게 한다. 화엄종을 통일왕국의 주도 이념으로 삼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원사는 소위 화엄전교십찰(華嚴傳教十刹) 중의 하나로 손꼽혀 이후부터 이 지역 불교의 중심사찰이 된다. 요즘 차령산맥이라 부르는 금북정맥(錦北正脈)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성주산에서 휘돌아 북주하여 이루어 내는 가야정맥(伽倻正脈)은 가야산에 이르러 가장 우뚝 솟아나 태안반도에 군림하는데 그 가야산 북쪽 계곡에 보원사는 위치



예산사면석불

한다. 상왕산 계곡이라 한 것은 가야산 연봉 중 북쪽 봉우리들은 상왕산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에서 가야(Gaya)는 코끼리라는 뜻이니 가야나 상왕이나 같은 의미라서 처음에는 함께 쓰던 이름이다. 그런데 뒷날 관행으로 북쪽은 상왕산이라 하고 남쪽은 가야산이라 구별하게 되었다. 가야산 남쪽 계곡에 역시 가야사(伽倻寺)라는 큰 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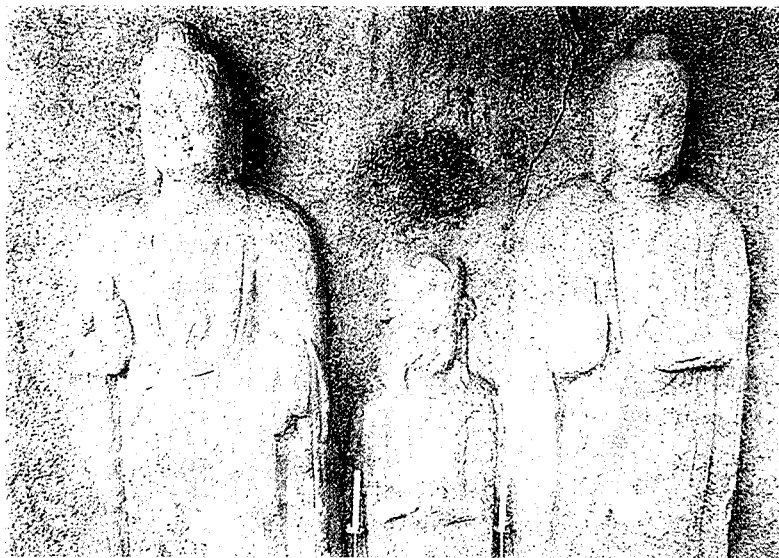
사실 이 가야산은 우리말로 개산(개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우리는 모두 이렇게 불렀다. 합천의 가야

산이나 나주의 가야산 등이 모두 그렇다.)이던 것을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석가세존이 대각(大覺)을 이루었던 곳이 가야 즉 붓다가야이므로 가야 근처에 있던 가야산(Gayra, 象頭山)의 이름을 옮겨다 불교식으로 표기하여 성역화(聖域化)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그러니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가야니 상왕이니 하는 구분이 없이 함께 써왔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로 들어와 억불정책의 결과로 불교지식이 상식 밖으로 밀려 나가자 가야와 상왕이 서로 다른 의미로 오해되어 이와 같은 구별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수덕사



태안마애석불

3. 선종의 발상지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663)와 고구려 멸망(668)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뒤에 이곳 내포지역의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 보원사를 화엄전교십찰 중의 하나로 건립하여 화엄종자를 전파해 가지만, 이곳 백성들의 반신라적인 감정은 더욱 골이 깊어 간다. 그래서 통일신라 왕국이 통일의 여세로 극성을 보일 때까지는 변방의 망국 후예로 은인자중하고 있었지만 차차 신라 왕실이 내분을 보이면서 해체되어 나가는 기미가 나타나자 이곳 내포지역은 옛 백제의 해상

전진 기지다운 진면목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백제의 멸망 당시에 거의 괴멸되고 부흥운동 실패 시에 완전 소멸한 선단(船團)의 복구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백제 멸망 당시 제해권을 당의 강남 선단에게 빼앗긴 이래 150여 년 동안 바다를 놓치고 살아온 내포의 해양족 후예들은 복구된 선단으로 중국 해적들을 소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제해권을 되찾아 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런데 마침 장보고(張保皋, ?~846)가 흥덕왕 3년(828)에 흥덕왕에게 군사 1만을 빌려 남해의 완도에 청해진(淸海

鎮)을 베풀어 제해권 회복에 앞장서니 이곳 내포 해상세력들도 그와 손잡고 그 일에 합류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통일신라 왕조의 주도 이념이던 화엄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념으로 새 사회를 건설해 가려는 신사조(新思潮) 운동이 맨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 때 앞장선 인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문(禪門)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의 실질적 개산조(開山祖)인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 804~880)이다.

가지산문의 종찰(宗刹)인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에 세워져 있는 <보조선사 창성탑비(普照禪師 彰聖塔碑, 보물 170호)>의 내용에 의하면 보조선사는 웅주(熊州) 사람으로 속성을 왕성인 김씨라 하였으니 내포를 점령하고 들어왔던 김씨 왕족의 후예이었던 듯하다. 이때는 내포 지역도 웅주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선사의 집안도 내포에 정착한 지 이미 150여 년이 지나면서 내포의 토착 귀족으로 뿌리를 내리었으므로 오히려 반신라적 성향이 더욱 강해졌던 듯하다. 그의 비문에 나타난 행장을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어려서 화산사(花山寺; 봉산 사면불이있는 곳의 현재 지명을 花田이라 하니 당시 이곳 절 이름이 花山寺가 아니었던지 모

르겠다.)의 권(勸)법사에게 출가하여 흥덕왕 2년(827)에 24세로 당시 이 일대 불교를 주도하던 화엄종찰인 가랑협산(加良峽山) 즉 가야산 보원사(普願寺) 계단에서 계(戒)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는 도리어 당시로서는 혁신이념인 남종선(南宗禪)을 최초로 받아들여 온 도의(道義)선사의 문하에 나아가 인가(印可)를 받는다. 그런 다음 도의선사의 수제자인 역성사(億聖寺) 염거(廉居)화상의 법을 이어 도의의 법장손(法長孫)이 된다.

보조선사는 설악산에서 조사(祖師)인 도의선사가 거처하는 진전사(陳田寺)와 사부(師父)인 염거화상이 거처하는 역성사를 내왕하며 10년 공부를 마친 다음 희강왕 2년(837)에 34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건너간다. 이 때는 장보고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을 때이었으므로 이와 연계되어 있는 내포 해상세력의 선단이나 강화만 해상세력의 선편으로 안전하게 서해를 건너 당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체장은 당나라 여러 곳을 다니며 선지식(善知識)을 역방해 보니 고국에서 조사인 도의선사로부터 배운 선지(禪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지라 체류한 지 만 3년 만인 개성(開成) 5년

(840) 즉 문성왕 2년에 37세의 나이로 평로사(平虜使)가 귀국하는 선편을 따라 귀국하고 만다.

그러나 그가 귀국하고 나서 5년 뒤인 문성왕 8년(846)에 장보고가 따님을 왕비로 들여 보내려다가 왕도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자 반란을 일으키다가 무주(武州; 현재 전라남도 光州) 사람 염장(閻長)의 계교에 말려 살해당함으로써 문성왕 13년(851)에는 청해진 세력이 해산되어 그 일부가 익산으로 강제이주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이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각 해상세력들은 구심점을 찾지 못해 한동안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러나 보조선사는 이런 해상세력들을 규합하여 제해권을 다시 잃지 않게 하기 위해 그후 15년 간은 설악사 역성사와 진전사 및 출가 본사와 수계본사가 있는 고향 내포 일대를 왕래하며 선지(禪旨)를 펼쳐내어 민심을 수습하였던 듯하다. 청양 장곡사(長谷寺)가 선사의 개창(開創)이라는 사실에서 이를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그런데 신라 조정에서는 신무왕(神武王)이 장보고 군대를 빌려 민애왕(閔哀王)을 몰아내던 때(839) 민애왕의 대장군이 되어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대구

에서 장보고 군대를 맞아 싸우다 패배하여 소백산으로 피신 은거하고 있던 김흔(金昕, 803~849)이 조정으로 다시 나온다. 그리고 신라 왕경 귀족의 후예로 김흔과 깊은 인연이 있는 낭혜(朗慧)화상 무염을 내포 최남단인 남포(藍浦) 성주산(聖住山)으로 보내어 가장 먼저 남종선문(南宗禪門)을 개설하여 혁신이념이 반신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대증 초년 즉 문성왕 9년(847)의 일이었다.

이에 보조선사는 아무래도 청해진이 설치되어 있던 무주 쪽 인심을 무마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었던지 현안왕 3년(859)에 광주 황학난야(黃鶴蘭若)로 거처를 옮긴다. 그러자 신라 조정에서는 선사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가지산사(迦智山寺; 이 역시 갯산 절의 한자식 표기이니 가야산 절 즉伽倻寺와 같은 의미이다.)로 이주(移住)할 것을 청한다.

그래서 현안왕 4년(860) 57세 때 가지산사로 옮겨가서 이곳을 가지산 보림사(寶林寺)로 표방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선문(禪門)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한다. 그래서 내포 출신 인물인 보조선사의 탐비가 바로 이곳 가지산 보림사에 세워져 지금까지 전해져 오

고 있다.

한편 내포의 남쪽 끝에 해당하는 성주산(聖住山)에 성주산문(聖住山門)을 개창한 낭혜화상은 태종 무열왕의 8대손에 해당하는 왕손이었다. 진골 귀족으로 대대로 출장입상(出將入相)하였으나 그 부친인 범청(範淸)에 이르러서 6두품으로 떨어졌다 한다.

『최문창후전집(崔文昌侯全集)』 주석에서 그가 만년에 검술을 좋아하였었는데 헌장(憲章, 金憲昌 혹은 憲貞, 명주군왕(冥州郡王) 김주원(金周元)의 장자로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821년 웅천주 도독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822년 伏誅되었다.) 공이 모반하였다가 복주되는 것을 보고 출가하여 승려가 되니 조정에서는 골품대덕(骨品大德)이라는 호를 내리고 한주승통(漢州僧統)을 맡겼다 하였다.

그러니 김범청은 아마 무열왕 후손으로 김현창과 가까운 일가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낭혜화상도 김현창이 복주되자 그 해에 중국 유학길을 택하게 되고 같은 무열왕 후손인 김흔이 정조사(正朝使)로 가면서 이를 그 배에 태워 데리고 갔었던 듯하다.

김현창이 주살될 때 친척 부하 239명도 함께 사형되었다 하니 낭혜화상

부자도 겨우 거기서 모면한 일가인 듯 하며, 김흔이 대왕자(代王子)가 되어 숙위왕자(宿衛王子) 겸 정조사로 당나라에 가기를 자원한 것도 김현창의 난과 연관 있는 듯하다.

김흔이 당은포(唐恩浦; 지금의 경기도 남양)에서 배를 타는 것과 그곳에서 낭혜화상을 동승시키는 것 및 범청이 승려가 되어 한주승통이 되는 것을 연결시켜 생각하면 낭혜화상 일가의 수봉지가 현재 서울 일대인 한산주(漢山州)이었던 것 같다.

어떻든 낭혜화상은 23세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강서(江西) 도일(道一, 709~788)의 제자인 마곡(麻谷) 보철(寶徹)로부터 남종선의 인가를 받아 남종선맥을 이어 온다. 강서 도일은 속성이 마(馬)씨 라서 마조(馬祖) 도일로도 널리 불려지고 있었다.

일찍이 남종선의 시조인 육조(六祖) 혜능(慧能, 638~713)선사가 제자인 남악(南岳) 회양(懷讓, 677~744)선사에게 [네 문하에서 망아지(馬駒)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이다.] 하였다 한다. 우리나라 선사들이 특히 그의 법맥을 많이 이어 와서, [법수(法水)가 동류(東流)하리라.]는 육조대사의 다른 예언과 함께 모두 이를 적중

시킨다. 낭혜화상도 마조 도일의 법맥을 이어 와서 그 예언을 적중시키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가지산문의 시조인 도의선사 역시 마조 도일의 제자인 서당(西堂) 지장(智藏, 735~814)선사에게서 인가를 받고 돌아왔었으므로 법맥으로 따지면 도의선사와 낭혜화상은 사촌 형제간이 되는 법형제이다. 그러나 도의선사는 낭혜화상이 출생하기도 전인 선덕왕 5년(784)에 당나라에 건너가서 낭혜화상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해인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한 할아버지 뻘의 대선배이었다.

그러니 도의선사가 초조가 되는 가지산문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설된 남종선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 후원세력이 미미하여 산문설립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낭혜화상은 문성왕 7년(845)에 귀국하여 왕경으로 가서 모친을 찾아 뵙고 머물만한 곳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장보고가 문성왕 8년(846)에 반란에 실패하고 피살된다. 이에 민애왕 2년(839)에 장보고 군대를 막다가 실패하여 소백산으로 피신하여 은둔해 있던 김흔이



성주사지

비로소 금고(禁錮)가 풀리게 되었으므로 낭혜화상은 김흔을 만나 거처를 의논하게 되었던 듯하다.

그러자 장보고난의 평정에 따른 서남해안의 민심 수습이 시급한 때인지라 김흔은 낭혜화상을 내포 남쪽에 있는 자신의 수봉지(受封地)인 남포 성주산의 성주사에 주석시켜 일문(一門)을 개설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다.

김흔은 일찍이 헌덕왕 14년(822)에 숙위왕자(宿衛王子)가 되어 당나라 조정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숙위하고 돌아왔으므로 남종선이 어떻게 민심을 수습할 능력이 있는 지를 대강 짐작하

는 터이라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그를 백의재상(白衣宰相)이라 하였던 모양이다.

이런 연유로 혁신 이념인 남종선이 신라 조정의 후원 아래 최초로 내포 남쪽 성주산에 뿌리를 내려 성주산문(聖住山門)을 개설하게 되었다. 대중(大中) 초년 즉 문성왕 9년(847)의 일이었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내포지방에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최초의 선문이 조정의 후원 아래 개설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선문(禪門)의 효시(嚆矢)도 내포 지방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이보다 10여 년 앞서 홍척(洪陟)선사가

홍덕왕(826~836)의 귀의를 받아 지리산 기슭에 실상사(實相寺)를 짓고 실상산문을 개설했다고 하나 그 경위에 대한 기록은 분명치 않다.